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요원 '탄탄한 재력' 청담동 알짜 오피스텔 소유



뉴시스



어느덧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이요원은 43살로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나 1997년 고등학교 방송반 시절 별생각 없이 출전한 모델 캐스팅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월간 잡지 '피가로'와 유명 연예 잡지인 '아이러브스타' 11월 호를 장식하며 독보적인 미모를 인정받았다.

1998년 영화 '남자의 향기' 출연으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여기 출연한 배우 명세빈의 아역을 찾던 장현수 감독이 이요원이 찍힌 잡지 화보를 보고 뛰어난 마스크에 매료돼 배우로 낙점한 것이다.

이후 1999년 KBS2 '학교2', 2000년 KBS2 '꼭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등 여러 작품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으며 다양한 CF에서 주가를 올렸다.

2001년에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과 제3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듬해 SBS 드라마 '대망'에서 여주인공 윤여진 역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2003년 골프선수 출신 사업가 박진우 씨와 결혼하면서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그해 12월 첫 딸을 출산하고 2년간 공백기를 가진 뒤 2005년 SBS 드라마 '패션 70s'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전쟁통에 부모와 헤어지면서 동네 언니였던 고준희(김민정 분)와 뒤바뀐 삶을 살게 된 여주인공 한더미 역을 맡아 좋은 평을 받았다.

2007년 SBS '외과의사 봉달희', 2009년 MBC '선덕여왕', 2012년 MBC '마의' 등에서 주연으로 드라마 인기를 견인했다. 특히 '외과의사 봉달희'로 SBS 연기대상에서 10대스타상·최우수상·인기상·베스트 커플상 등 4관왕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선덕여왕'으로는 2009년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다.

같은 해 개봉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관객 수 약 730만 명으로 충무로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잡았다.

이 외에도 드라마 '황금의 제국' '욱씨남정기' '불야성' '부암동 복수자들' '달리는 조사관'과 영화 '된장' '용의자X' ' 전설의 주먹' '그래, 가족' 등 다양한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며 연기자 생활을 해 왔다.

그중 2019년 MBC 드라마 '이몽'에서 이영진 역을 맡아 열연했다. 원래 이영진 역은 배우 이영애가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케줄 조율 문제로 드라마 출연이 불발되면서 대체 배우로 캐스팅돼 더욱 주목받은 바 있다.

'이몽'은 일제 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인 손에 자란 조선인 의사 이영진과 무장한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 액션 드라마다. 이요원은 낮에는 외과의사·밤에는 독립군 밀정이라는 이중생활을 하는 이영진 역을 연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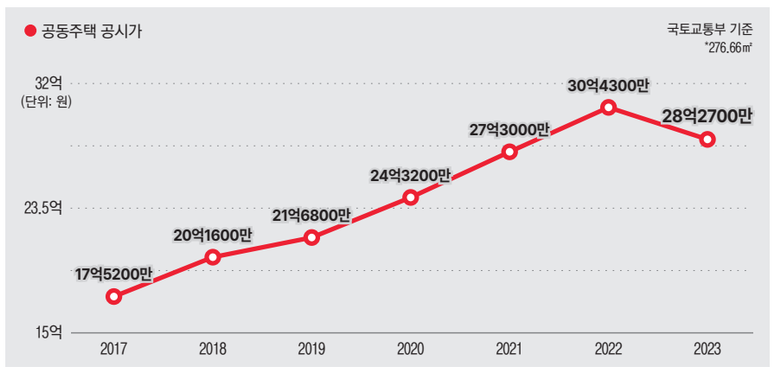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2019년 방송된 OCN 드라마 '달리는 조사관' 이후 3년 만에 '그린마더스클럽'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그린마더스클럽'은 녹색어머니회로 대표되는 초등 학부모 커뮤니티의 민낯과 동네 학부모들의 위험한 관계망을 그린 드라마다. 이은표 역을 맡은 이요원은 프랑스 유학파 출신인 고학력 엄마로, 아이의 교육으로 갈등하는 보통 엄마를 가장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 중인 이요원의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C오피스텔(사진) 한 호실을 2019년 12월 18억43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복층 구조로 공급면적 129.57㎡(약 39.19평)·전용면적 79.24㎡(약 23.96평)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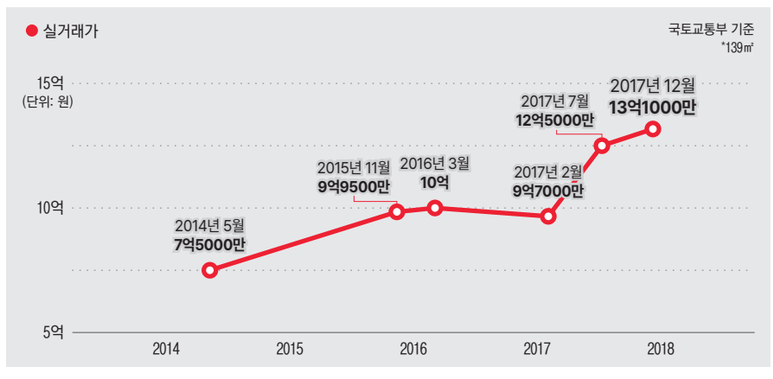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불리는 이곳은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는 청담 사거리 근처에 있다. 이요원 소유 호실보다 약 1.46평 정도가 더 큰 전용면적 84.07㎡(약 25.43평)의 호실이 보증금 1억 원 기준 월세 550만~6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 등 강남지역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오피스텔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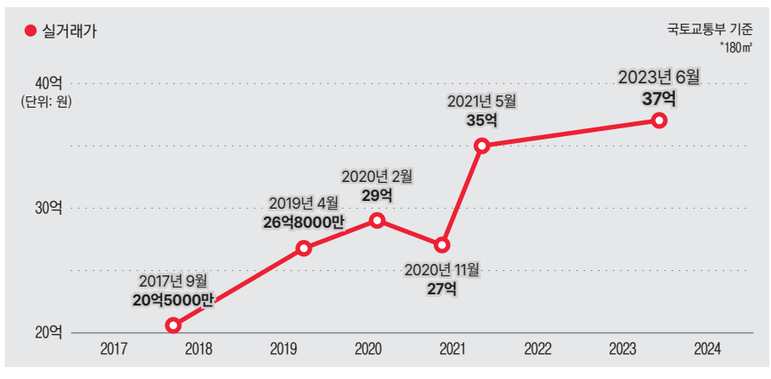
호원빌라(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1차(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성진흥(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재환 현)재산홀딩스 회장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의 부친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남동생이기도 한 그는 배재고를 나와 타이완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박정희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지낸 민기식 씨의 딸 민재원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CJ제일제당 일본지사 부장·CJ그룹 경영기획실 중국 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2005년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한 뒤 CJ계열사의 광고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급성장했다. 이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J그룹 방송 송출 대행업체인 CJ파워캐스트에 합병되며 공동대표가 됐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CJ그룹 계열사인 CJ CGV와 내부 거래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적발당해 체면을 구겼다. 대외 활동에 잘 나서지 않아 은둔의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주환 전)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원장



임주환 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원장은 서울대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대에서 통신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원을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무총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16년 임 전 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진단했다. 그는 미래 트렌드를 대표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를 꼽으며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손꼽히며 로봇 기술과 연계돼 산업 전반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철호 현)성신여대 사회과학대 경영학과 교수



신철호 성신여대 사회과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기업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성신여대 사회과학대 학과장·성신여대 금융정보대학원 원장·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디자인브랜드경영학회 회장·성신여대 부총장·제16대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했다. 지식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5년부터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신 교수는 2012년 3월 한국의 전략경영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으로 취임해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14가지 경영혁신기법의 통합 모델' '합병후 통합전략' '브랜드 경영' '스물다섯 새우잠을 자도 고래꿈을 꾸어라' 등을 공저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140가구 12월 분양

충남 아산시

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8개동·총 114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는 △84㎡A 570가구 △84㎡B 259가구 △84㎡C 129가구 △96㎡ 182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매곡리 869번지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녹지·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디스플레이시티1·2(예정) 및 주변 산업단지들과 인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향후 아산·천안을 대표할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까워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또한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한 교통 편의성도 높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인 '학품아(학교 품은 아파트)'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탕정역 일대에 조성돼 있는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모다아울렛·이마트·CGV·갤러리아백화점·이마트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남측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고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이 위치한 공세권 아파트이며 인근 용곡공원·지산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상품성 또한 돋보인다. 단지의 건폐율은 12.34%로 넓은 동간 거리가 확보돼 있으며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향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난방·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세대 출입까지를 3중으로 지켜 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

경기도

경기도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성과를 담은 '202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조경·소방 등 10개 분야의 지적·우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현장 사진 위주로 제작해 건설 현장 및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는 올해 7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를 통해 최신 기술 반영 및 주요 개선사례 등을 담은 시·군 품질 점검 '표준 매뉴얼'을 신설해 도내에 일관된 품질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사례집에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사후점검 단계까지 총 5개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시공자 및 감리자가 시공 하자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A단지에서는 결로 방지를 위해 전용세대 내 드레스룸에 천장형 제습기를 설치했고 B단지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사용하는 자재 인양구 위치를 입주 후 사용자의 이동이 적은 아일랜드 식탁 하부로 선정했다.

도는 사례집을 시·군 공동주택 품질 점검 관련 부서 및 건설 관계자 등에게 별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게재한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 사례집' 표지. 경기도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